



《쿠지는 이쪽입니다》

2013년 봄, 일본에 흥미가 없더라도 한번쯤은 들어 봤을 NHK방송국에서 [아마짱(해녀양)]이 방영되었습니다. 저는 방송할 때가 아니라, 첫번째 이와테대학 유학시절인 2015년 겨울에 보았는데, 정말 재미있게 본 드라마입니다. 아마짱은 일본의 쿠지를 배경으로 하고있는 드라마입니다.

등나무처럼 얽혀있는 연애관계라던가, 여자끼리 싸대기를 날리는 타격기가 난무하는 한국의 아침드라마와는 다르게, [아마짱]은 전형적인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의 일본 아침드라마여서 저에겐 신선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짱]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요소는 여럿 있지만,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시골사람들, 진심으로마을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드라마속 인물들을 응원하게 됩니다. 다른 좋았던 점은, 쿠지의 해녀(아마), 호박, 남부모구리(전통 잠수법), 11년 지진 후의 여러 노력들이 잘 표현되어있어 쿠지에 대해 알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마짱]은 밝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의 도시진출로 인한 후계자 부족, 화

려한 도시를 그리워하는 사람, 동일본지진 등, 실제로도 있는 사회적 문제도 [아마짱]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갑자기 [아마짱]이야기를 꺼낸 것은, 제가 다니는 이와테대학을 통해 [쿠지 사무라이하마마을 홈스테이 모니터투어]라는 프로그램으로 11월 11~13일 동안 쿠지와 사무라이하마마을에 다녀와서입니다. 홈스테이 한 곳인, 사무라이하마 마을은 쿠지와 15분 거리 떨어진 시골이면서도 부흥에 노력하는 곳이었습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사무라이하마 마르쎬]가 그 예입니다.

「사무라이하마 마르쎬」



《마르쎬 먹거리》



《마을 주민이 만든 공예품》

현대판 마츠리라고 생각하는 이 이벤트에서는 가리비, 전복, 꼬치, 생선, 덴가쿠(된장을 바른 두부 구이)등을 팔고있는 가판대와, 체육관 안에서는 여러 전시품을 전시하고있고, 야채나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전통춤과 합창 등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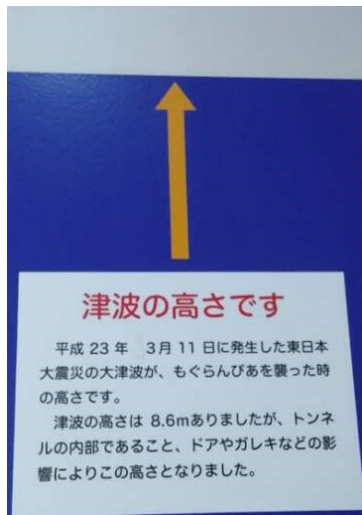
「모구람피아」

수족관 [모구람피아]. 이곳은 쿠지만의 오리지널 요소가 많아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가장 유명한것은 드라마[아마짱]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해녀. 무려 관광해녀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에 할머니들이 “몇 살이야? 결혼은 했어?”같은 해녀와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들이 있었지만, 관광해녀는 발랄하게 대답하는게 재미있었네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때 본 관광해녀는 위의 사무라이 마

르쉐에서 시금치를 팔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쓰나미 있었던 곳이지’라고 깨닫게 한 표지판도 있었습니다.



《모구람피아에서 볼 수 있는 관광해녀》



《쓰나미가 있었다고 깨닫게 해준 ‘쓰나미가 왔던 높이입니다’》



《모구람피아를 응원하고있는 예능인이자 교수「사카나군」》

「그리고 이것 저것」



《드라마와 너무 똑같아서 찍을 수 밖에 없었던 '마메부 먹을래?'》



《1억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오파크 단층》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선장님과 함께 태평양 위에서 본 해안》

그냥 저냥 결말

사실 저는 예전엔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동안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좋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뿐, 도시의 딱딱함을 느꼈습니다.

쿠지와 사무라이하마 마을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시골만의 자연도 물론이지만, 다들 친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인 특유의 친절함이 아니라, 홈스테이 한 곳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손자처럼 대해주셨다는 것, 이것저것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가이드분, 딸이 한국인과 결혼했다며 저에게 특히 친밀감을 느끼신 선장님, 그리고 인솔해주신 관계자 분들 등, 전부 이야기하면 아마 끝이 안보일거같네요.

쿠지에는, 쓰나미 이후 고향에서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른 곳에서 온 분들이 계셨습니다(모니터투어 관계자인 키무라상은 교토, 관광해녀는 도쿄출신). 화려한 도시도 좋지만, 온정이 남아있는 쿠지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